

다시 '광장(廣場)'의 책장을 넘기며

Turn over the pages of 'The plaza' again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뒤채면서, 숨을 쉰다” 4.19 혁명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기 전 최인훈이 발표한 그의 불후의 명저 ‘광장’의 첫 구절이다. 읽을 때 마다 영혼 깊은 곳을 우릿하게 하여 가슴이 먹먹해지게 하는 마력이 있다. 그가 몇 번에 걸쳐 이 구절을 수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첫 구절에 그가 책속에서 전하고자하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이명준은 해방 후 사회·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개인의 밀실(密室)인 광장과 개인의 광장인 밀실의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밀실은 있지만 사회적 광장이 없는 남한과 강요된 사회적 광장은 있지만 내밀한 밀실이 없는 북한 사이에서 고뇌하다, 휴전 후 광장도 밀실도 없는 중립국을 선택하여 떠나다 남중국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 생을 마감한다.

즉, 책의 첫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누구에게는 전 부이고 어느 시기에는 절대적인 것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광장에서 충돌하여 혁명으로 전개되거나 더 큰 반동으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묵묵히 흐른다는 것이리라.

바야흐로 광장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2012년 새해는 20년 만에 맞는 양대 선거의 해로서 북한의 권력 교체기와 맞물려 해묵은 보수·진보 논쟁으로부터 성장·복지, 집중·균형, 중앙·지역, 미래·현재, 유상·무상 등 양립하기 어려운 온갖 가치들이 광장에서 충돌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건축부문도 건설예산이 최근 복지예산 확대의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되면서 광장으로 불려나와 혹독한 논쟁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간 SOC나 주택수요의 절대적인 부족 속에서 건설은 호황기에는 민간부문 주도로 불황기에는 정부주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스톡(Stock)이 확보되어 성장의 임계점을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 위주의 건설시장 상황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과 같이 광

장과 밀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 및 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과 관행,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혁명가(革命歌)이자 현재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집한 베토벤은 1807년, 공화제와 광장의 자유를 꿈꾸며 혁명의 열기를 담아 ‘제5번 교향곡(운명의 동기가 사용되었다 하여 개인적 역경과 관련된 ‘운명교향곡’이라 불리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가가 인용된 ‘혁명교향곡’임) 등을 작곡하였다.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 퇴위 이후 앙시앵 레짐(구체제)으로 복귀되자 작품의욕을 상실하고 내면의 밀실로 침잠하였다.

그러나 1821년 이 모든 것을 예술혼으로 극복하고 밀실에서 나와 광장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담은 인류의 ‘라 마르세예즈’인 제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함으로써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건축인들에게 현재, 눈앞에 펼쳐진 또는 전개될 냉엄한 시장이 마치 이명준이 뛰어든 때 바라본 남중국해의 크레파스처럼 진하고 무심히 넘실되는 바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코 만쿠조가 “유럽의 역사는 광장의 역사”라고 했듯이 아직도 우리에게서 창조해야할 수많은 도시의 광장이 남아있고, 이러한 광장을 만들 수 있는 밀실의 자유도 넉넉히 누리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의 광장을 진정한 역사의 광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도시와 그 속에서 호흡하는 시민들이 풍요로워 질 때 진정한 역사와 복지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베토벤과 같이 밀실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 광장을 만들고 광장의 중심에 설 시간이다. 어떻게 광장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블로 네루다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누가 나에게 시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시는 대답해 줄 것이다” 



유 인 재 | Yu, In-jae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과장

약력

- 성균관대 건축과
- 기술고시 제29회 합격
- 런던대학교 대학원 Bartlett School
- 클래식바움 회장